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7 / 11



禪定路 (48x48 - Acrylic on Canvas)

스님의 족적을 헤아려 봅니다. 어느 날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시고, 또 어느 날은 '참묵하는 날'이고, 또 어느 날은 '입선 시간'이라 하시면서 '해와 달'만 벗어나 철새 되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오직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살다가 가라고만 유언 하셨습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삶 자체가 참 경전
처음 마음으로	12	명산대천의 관음성지들
시심청심	16	꽃잎에 난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일요특강	18	생각을 벗어나 희망이 보인다 - ②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3	질문 잘 하시나요?
아름다운 마무리	26	11월 결연 대상자 - 강호수(가명)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작(운문)	28	저학년 운문 / 고학년 운문
좋은글 나눔터	36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古典을 읽다	38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 헬렌 니어링 지음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73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삶 자체가 참 경전

인간의 이 육신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므로 꽃이나 향으로 감추어져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잘난 체 빼기거나 남을 깔본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글·법 정(法 頂)

걸거나 서며
또는 앉고 눕거나
몸을 구부리고 또는 편다
이것이 신체의 동작이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내피(內皮)와 살과 살갓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이 몸의 내부는
장과 위와 간장,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콧물, 점액, 진물, 지방, 피, 관절액, 담
즙, 기름 등이 있다.

또 이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아홉 구멍은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콧구멍,
입, 항문, 생식기를 가리킨다.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가래를 뱉는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의 빈 곳(空洞)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無明)에 이
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묘지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는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쪼아먹는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
다.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 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애욕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안하고
멀하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

인간의 이 육신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
므로
꽃이나 향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오물로 가득 차서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잘난 체 빼기거나 남을 깔본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강론 -

육신의 한계와 실상을 잊지 말라.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 음악보
다 훨씬 마음을 즐겁고 순하게 다스
려준다. 흙과 나무들은 말이 없어도
생기에 차있다. 발가벗은 나무의 숲

에 안개가 서리니 뻑뻑해진 내 가슴에도 물기가 배어드는 것 같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강추위 속에 훑날리는 눈보라보다 우리 마음을 한결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준다. 이러다가는 어디선가 매화와 동백이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다.

초기 불교가 분석적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다. 불타 석가모니는 세계와 인생에 대해 투철한 관찰로써 있는 그대로를 보았고, 치밀한 분석으로써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 육신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분석과 관찰을 시도하고 있다. 뼈와 힘줄로 엮어서 살갓으로 포장된 육신의 실상을 낱낱이 해체해 비정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과 해체의 의도는, 이 육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데

있다.

친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가끔 묘지나 화장터에 따라가는 수가 있다. 평소 고인의 삶의 자취를 되새기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어디까지나 '관객'의 입장에서 한다. 그러나 단순한 조문이나 관객의 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친구의 차례지만, 이 다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차례임을 알아야 한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더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초기 교단의 수행자들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기 위해 부정관不淨觀을 닦은 것도, 이런 경전을 통해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굳이 부정不淨한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태도도 육신에 대한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 살갓 속에 그와 같은 오물투성이인 이 육신을 갖고도 아름답고 어질고 착한 마음씨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몸 또한 빛과 향기를 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몸은 한편 악기와 같아서, 좋은 가락을 연주하면 아름답게 울리고, 추한 가락을 툽기면 추하게 울리게 마련이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한계와 실상을 망각하지 말

라는 것. 이런 되돌아봄이 없으면 인생이 자칫 오만해지거나 넘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필가이며 사상가인 랄프 W. 트라인이 쓴 〈나에게서 구하라, 내 안의 무한한 지혜와 생명을 찾아〉(류시화 번역)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혼의 방에 많은 창을 달아라
우주의 광명이 두루 비치도록
좁은 생각의 문구멍으로는
저 한량없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눈먼 관념 유희 다 내던지고
하늘처럼 높고 진리처럼 드넓은
그 맑은 창으로 빛이 넘치게 하라.

그대의 귀를
저 소리 없는 별들의 음악에
태초의 소리에 열어놓고
그대의 심장을
꽃이 해를 보고 얼굴을 마주하듯
진리 쪽으로 고통치게 하라.

보이지 않는 천 개의 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평화의 바다로
그대를 데려가리라
수천만의 눈들이
환한 빛을 보내리라.

지적인 자만이 편견에 사로잡혀,
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 문을 막아놓는 사람에게
진리는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
는 말한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다가올지 모르는 진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똑
같은 법칙에 의해서 진리가 사방에
서 다가온다는 것이다.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이나 흩어
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그에게 진리
를 노래해주고, 어디서나 그는 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사
람이 된다고 했다.

랄프 트라인은 에머슨, 소로우, 휘
트먼 등과 함께 동양적인 근본 회

귀根本回歸 사상에 뿌리를 둔 세계
관으로 서양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지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흥미있게 펼쳐보인다.

"한 마리 지네가 백 개나 되는 다
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백 개나 되는 다리로 걸어
가는 것은(사실은 기어가는 것이지
만) 하나의 기적이다. 두 개의 다리
를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백
개나 되는 수많은 다리를 조절한다
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
다. 그러나 지네는 언제 어디서나 잘
조절해왔다.

이런 지네를 지켜보던 한 마리 여
우가 의문에 사로잡힌다. 여우라는
짐승은 항상 호기심에 사로잡혀있
다. 우화 속에 등장하는 여우는 물
론 일종의 상징이다. 지식과 분석과
논리의 상징. 여우는 보고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전파한다.

여우는 지네가 백 개의 다리를 가
지고도 아무 탈 없이 잘 걷는다는 사
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네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애,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다. 너
는 어떻게 그 많은 발들을 조절하
니? 한 발 다음에 어느 발이 뒤따라
야 하는지를 어떻게 다 알고 있니?
백 개의 발이라니, 그 많은 발을 가
지고도 너는 아주 유연하게 걷고 있
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과연 어
떻게 이런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니?"

지네가 대답한다.

"나는 평생을 두고 이렇게 그저 걸
어다닐 뿐이야. 그러나 한번도 네가
묻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내게 시간을 주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볼게."

지네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지네는 처음으로 분
리되었다. 관찰자로서의 마음과 관
찰되는 자로서의 그 자신으로 나누

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지네는 태어
날 때부터 자신이 지닌 능력에 따라
언제나 살고, 걷고, 또 그렇게 되풀이
해 왔다. 다리를 움직이는 자신과 다
리가 둘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전체
로서 하나였다.

그런데 여우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자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지네는 다시는 자
연스럽게 걸을 수가 없었다. 이때 여
우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네가 걷는 게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왔어. 나
는 그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
었던 말이야."

지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
데 여우 네가 문제를 일으킨거야. 이
제 나는 다시 그 것처럼 걸을 수가 없
게 되었어."

지식이란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이라
고 우화는 넌지시 일깨워준다. 이 이
야기는 우리에게 여우처럼 의심이 많

고 분별이 많으며 따지기 좋아하는 인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라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목사건 신부건 승려건 또는 철학자건 간에, 이 우주의 무한한 진리를 표현하고 미화하고 전파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세 치 혀로써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충동질해 진리를 깨달은 스승이라고 숭배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참된 스승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해석해주지 않는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울 뿐이다. 제자 내부의 본질이 그대로 꽃피어나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정열을 다 쏟는다.

많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 또는 개인적인 동기에 사로잡혀 서로 돋보이려고 애쓴다. 또 자신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체하거나 깨달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살아 있는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남의 스승 되기가 어디 쉬운 노릇인가. 자식이나 지혜는 그만두고라도 인간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서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우의 분별과 따짐을 넘어서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지네처럼 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도, 즉 이 풍진 세상의 온갖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

는 그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경전의 글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경전이 어디 좋이나 활자로 된 책 뿐이겠는가. 삶 그 자체가 참 경전 아닌가. 읽고 또 읽고 음미하면서 인생을 더욱 곱고 향기롭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길상사 -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 순례」

- 일정 : 2018년 1월 9일(화) ~ 1월 20일(토) / 10박 12일
- 동참금 : 285만원(카드결제 가능, 계약금 30만원)
- 모집 인원 : 30명
- 접수 : 1차 2017년 10월 31일까지 접수시 5만원 할인
2차 2017년 11월 30일까지
- 여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바이살리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필라바스투 - 스라바스티 - 렉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문의 및 접수 :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

공덕주 길상화(吉祥華)보살 기재 안내 11월 24일(음.10월 7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김 길상화보살님의 기재가 오는 11월 24일(음력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부터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실천하신 길상화 보살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길상스런 도량으로 가꿔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산대천의 관음성지들

글·덕 일(德日)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길상사도 량내에는 날이 갈수록 가을의 낭만으로 점점 짙어져만 가고 선홍색의 붉은 꽃무릇은 땅을 박차고 올라와 내방객들을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꽃무릇의 본래 이름은 돌틈에서 나오는 마늘종 모양을 닮았다하여 석산화(石蒜花)라고도 부르는데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佛家)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꽃말이기는 합니다만,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석산화는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옛날에 선운사 비구스님을 짝사랑하던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어 매장하였는데 무덤에서 이 꽃무릇이 피어났다

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무릇이 유난히 절에 많은 이유는 이 꽃에 방부제 성분이 있어서, 탕화나 단청을 할 때에 또한 부처님의 경책을 보관할 때에 뿌리를 썰어서 바르면 색(色)들이 바래지 않고 오래간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예쁜 꽃무릇을 보시면서 초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중에서는 추계관음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백중 천도재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도에 동참하시어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열심히 기도에 임하신 결과 백중기도를 원만 회향하였습니다. 회향은 또다른 시작과도 같은 의미인데, 요

즘 들어 신도분들께서 기도에 임하시는 마음이 좀 느슨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경제 문제가 안팎으로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마음으로 청정심을 유지하며 신심을 돈발하여서 관음기도에 열정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현재 추계관음기도를 봉행하는 기간이니만큼 명산대천(名山大川)과 관음영장(觀音靈場)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불법을 널리 홍보하기로 큰 서원을 세워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면 서원코 자신만의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진리의 세계는 무외자재(無畏自在)하므로 부처님은 <관음경> 첫머리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모든 고뇌를 받게 될 때에 관세

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나니라.

여기서 ‘백천만억 중생’이라 함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라는 뜻이니, 즉 무량세(無量世)의 중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來世)의 무한한 공덕을 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의 공덕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이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일 수도 있고, 또는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즉 전미개오(轉迷開悟)의 길일 수도 있으며, 또는 모든 악을 그치고 선행을 닦는 지악작선(至惡作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으시니 시방제국토(十方諸國土)에 두루하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가지가지의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나타난다 하였거니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서 동해[낙산]를 비롯하여 남해[금산], 서해[낙가산] 등에 일찍이 관음영장이 조성되었고 이로써 관음정토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수명하여 곳곳의 명산대천에 역시 관음성지가 마련되었으니 그 창건 연기에서 관세음의 묘지력을 짚을 수 있고 그 신묘한 영이에서 가피력이 현존하심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손꼽히는 금강산(金剛山)은 주봉인 비로봉을 위시하여 1만 2천봉(峯), 만물상, 구룡폭포 등 절대적인 경치를 이루어 조화의 신비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은 겨레의 숭앙대상이 되어 왔으며 더구나 불교신앙과는 밀접한 유연(有緣)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성지를 가볼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관광길이 열려 출입허용시에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한편 금강산의 남쪽인 설악산에 자리잡은 오세암은 오세동자관음보살의 성지이니 일찍이 신라 자장을 시가 창건한 관음도량이고, 만해선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옛날 백제시대의 관음연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 곡성 옥과면 성덕산의 설화는 고대인들의 신앙적 세계와 낭만을 가늠할 수 있으니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공덕을 한결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백제의 불교문화사적이나 그 유산이 우리에게 희소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학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제 관음상이 일본땅에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명산인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태백산, 금강산, 지리산, 오대산 등을 비롯하여 각 산악과 대천에는 관음연기와 함께 많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이와 같이 수처에 조성된 관음도량을 통하여 서민적 기원 속에서 토착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종파, 어느 사찰 할 것 없이 관음상을 모시고 신앙적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음경〉에서 부처님은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되, “관세음의 거룩한 덕행이 곳곳에 나타나 잘 응함을 네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응제방소(善應諸方所)’라 하여 중생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시현(示現)이 있음을 설하였으니, 우리나라 3면에 또는 국토의 여러 방소(方所)에는 관세음의 묘지력이 미치지 않음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라도 그 신앙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그 구제조건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금지사항, 터부 등등. 그러나 이 관음신앙만은 어떤 규제

조건이나 금지사항 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음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 아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뇌하는 소리를 통찰하는 성자,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나타나는 성자, 다시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간절한 부름에 따라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라도 그 앞에 나타나시는 절대자비의 보살이십니다. 이번 추계관음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가득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를 원만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 불기2561년 음력 8월 초하루 법문
(2017년 9월 20일)

꽃잎에 난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글 • 김용미(시인, 회원)

아픔은 아픈인 채로 남아 있다
 패인 살은 오랜 자국으로 생의 흔적이 된다
 해는 구름에 잠시 가려 있었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이유가 없어야 했다
 회색빛 칼바람 속, 세상이 이만큼 지나간 자리, 그 빈 가슴만 남았을 때 겹
 허히 바닥을 쓸며 흙의 냄새를 맡는다
 숨막히는 짧은 터널은 유유히 살았을 긴 시간보다 길었고
 살이 마르고, 뼈가 살갓을 잡아당겨 밖으로 튀어나온 이유도 생의 한 부
 분이었을 것이다.
 사막의 수레처럼 살아낸 하얀 웃음은 유연하게도 질긴
 눈물이 눈물이 겨우 말랐을 때였다.
 너를 뒤로하고 밤새 걸었던 그 길은 앞만 보일 뿐 목적은 없었다
 아무도 잡아 주는 이, 얘기할 사람도 없었던 끝은
 마침, 서정운의 『홀로서기』 시집을 한창 읽고 있을 때였지
 다시 시작이라는, 열 달 동안의 품 안으로 들어가
 다 버리고 버려 빈 수레로 남은 나를 보는 것이었다

허약해진 나를 업고 한의원을 드나들던 어머니는 아무런 병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너를 닮은 나무가 있다면 그 곁의 새와 풀꽃이라도 되고 싶었다
 어느 날엔 구름에 가려진 나를 꺼내 양지 바른 창가에 앉혀 형클어진 머
 리를 빗어 주는 바람의 손을 애써 기다리곤 했다
 바람은 불어 오지 않고 스스로 오고 싶을 때 온다는 것, 애써 기다리지 않
 아도 오고, 가지 말라고 잡아도 가는 것 하지만,
 스스로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일, 민들레는 민들레꽃대로, 장미는 장미꽃
 대로 살며 온전한 내가 되는 일, 그것은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었다.
 이제야 애써 환히 웃는다
 빈 수레는 더 이상 무겁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기에.

김용미 • 시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 동양꽃잎이 연구가, 2006년 <한국작가>시부문 등단. 우리
 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을 시의 문맥으로 흡수하여 거기에 자신만의 농밀한 경험과
 감각을 얹어내는 솜씨가 돋보이는 시인이다.

맑고 향기롭게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 입고되지 않는 소품들은 비정기 녹색나눔장터와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면 희망이 보인다 - ②

글 • 김창수

저는 가족의 일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헌혈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돼서 동생은 그렇게 수혈을 필요로 하는데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2007년부터 죽기살기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04회밖에 못해서, 방법을 바꿔 2009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고, 현재 200여회 넘게 헌혈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홍보를 하면 저를 보고 헌혈하시는 분이 30분은 됩니다. 제 덕분에 6,000명 이상이 헌혈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마음을 나눌 줄 알기에 태생이 착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치매할머니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할머니를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웃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만 가면 박수 선생님이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다가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을 맺고, 모희원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해서 배추도 심고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인요양원에 가서 노래도 하고 품 잡고 어르신들이랑 놀아드렸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은 최신 노래는 몰라도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

면서 조금씩 나아지십니다.



저의 궁극적인 문제는 제가 버는 월급보다 병원비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8천만 원을 벌면 9천만 원이 나가고, 9천만 원을 벌면 1억 원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피가 말라 죽어버릴 거 같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탈고를 했습니다. 시름에 빠져 있는 그때 동생이 다시 코피가 나기 시작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골수이식수술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골수가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골수이식이 아닌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는 이식을 위해 하루 7시간씩 21시간을 피를 넣었다, 뺐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일인데 칠순의 어머니가 막내를 살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으셨습니다. 암은 만약 1년 선고를 받으면 1년을 전후로 몇 달 안에 죽지만 골수이식은 그와 다르게 피가 돌아서 심장에 들어가는 순간 거부반응이 생기면 즉사합니다. 수술을 받은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심장에 들어가는 링거를 붙잡고 17시간을 견뎌셨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동생은 죽습니다. 그때부터 살아서 나가면 영화 한편 만들어 보자는 다소 미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동생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침마당에 방송이 되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2만권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2시간 강연에 300만원의 강연비

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쓰다보면 베스트셀러가 되겠지 생각했지만 세 번째 책을 출간해도 계속 빛만 늘어 갑니다. 그래서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희망퇴직금 2억을 받아 빛을 정산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죽기 살기로 강의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누가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책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생각을 벗자. 두려운 생각을 벗자.' 결론적으로 이 책도 베스트셀러는 안됐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월급보다 한두 배는 벌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열정'을 적어 보십시오.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는 열정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열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조금하거나 혼자서 잘 되려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조금함이 아닌 기다림의 열정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한라산을 처음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에는 산신령이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부처님께도 많이 빌었지만 산신령에게도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 가려고 하는데 사흘 동안 1,100mm 비가 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그쳐서 등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티브,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제 인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배추 한포기 두포기 셀 때 쓰는 말입니다. 죽는 그 날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1997년 박사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교수님께서 저에게 "희망특강 교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겸임교수입니다. 겸임교수는 박사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때 교수가 되지 못했지만 결국 전 한양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희망을 갖자'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 한 마리는 어두운 곳에, 다른 한 마리는 밝은 곳에 가렸습니다. 빛이 없는 상자에 갇힌 쥐는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갇힌 쥐는 9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빛을 보면서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쥐에게도 있는 희

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기필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를 만들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고 내가 붙들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제 삶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기회가 다른 것 아닙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 어떤 생각을 넣습니까? 된다는 생각. 나는 지금부터 된다는 마음으로 생각

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제가 부처님은 아니지만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필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한계에 도전하자'입니다. 도전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됩니까? 도전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도전의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저는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철이 들면서 팔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지금 일류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웃습니다. 언

젠가 분명히 일류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서 숨 쉬는 날 동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일류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처럼 웃으십시오.

'생각을 벗어나면 희망의 길이 보인다. 꿈을 향해 나가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며 그것은 기다림의 열정이다.' 병원에서 제 가족들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제 심장이 살아 있는 한 가족들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살아 있는 한은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 심장에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잘 하시나요?

글 • 고현희(공감대학 개발원장)

어른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들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대화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말한 후의 상황에 대하여 불편하거나 말이 길어질 것을 꺼리기 때문이겠지요? 동의하는 의견,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느 의견이라도 들을 준비가 될 것이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주저하는 마음을 털어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상대의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한다면 IQ와 EQ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질문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후 그 답에서 다시 질문거리를 찾아내서 질문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꼬마 대통령 전문가' 라는 동영상을 보면, 오바마가 출연한 TV토크쇼에 6~7세 정도의 어린이가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4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이 : 외계인은 진짜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 : 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린이 : 어떤 TV쇼를 본 이후로는 외계인은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엘렌 : 어떤 TV쇼였니?

어린이 : 아마 '미국의 비밀들'이라는 쇼였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오바마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 : 대통령네 강아지도 경호를 받나요? 아직도 엘렌이 준 강아지 밥그릇을 쓰고 있나요?

위 2개의 질문은 어린이라면 궁금해 할, 기발하기도 하고 시시하기도 한 질문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들과 똑같이 눈을 반짝이며 듣고 답을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듣고, 답하고, 자신의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성의있는 답을 들으면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휴일에 가족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한 그릇이 모자랐습니다. 엄마가 '내 밥을 열른 할게요, 어서들 먹어요.' 하고 밥 퍼주고, 새 밥을 안쳤는데, 중학생 아들이 밥을 그대로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 후 바로 나가야 하는 아빠가 서둘러 먹고 나서 한 질문: _____

남편이 나간 후 엄마의 질문: _____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우리 사회는 명령을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더욱 많은 명령들을 들으며 자랍니다. 집과 학교 어느 곳에서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의견은 뭐야?', '왜 그렇게 되었어?' 라는 질문을 듣지 못하며 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다면 누구

나 질문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툴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질문하는, 그리고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화의 방법은 상황-느낌-바람-부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느낌-바람-부탁, 혹은 너의 상황-느낌-바람-부탁을 말하기 위하여는 질문이 꼭 들어갑니다. 나의 부탁을 질문형으로 해야 합니다. 너의 느낌을 말해주면서, 바람을 짐작하여 주면서, 부탁을 '이렇게 하고 싶겠지?' 라고 질문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화를 하게 되면 질문을 잘하게 됩니다.

밥을 앞에 두고 방으로 들어간 아들에게 아빠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

니?'

아빠는 아들의 답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져서 방에서 나왔고, 바로 외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는 아들의 방문을 거칠게 열며, '밥 빨리 먹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다 되면 같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긍정으로 바꾸는 첫 걸음은 대화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대화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기존의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가을,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11월 결연 대상자 - 강효수(가명)

첫 번째 손가락 _ 사랑하는 아들

강효수 어르신의 첫 번째 아픈 손가락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르신은 30여 년 전 아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뚝한 코에 빛나는 눈, 아내를 꼭 닮은 사랑스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아픈 손가락인 아들은 평범한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만 기도했던 부모의 바람과 달리 아들은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올해 36세, 지적 장애 3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체 장애 때문에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있어 일반적인 생활은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나이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 밥을 먹는 일, 병원에 가는 일, 모두 아버지의 몫입니다.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아들의 기저귀 값, 병원 통원을 위한 교통비가 많이 들어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_ 사랑하는 아내

어르신의 두 번째 아픈 손가락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22살에 결혼한 아내는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 강한

아내였습니다.

든든한 아내 덕분에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마저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뇌병변 3급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입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월 들어가는 약 70만 원의 병원비 때문에 어르신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어르신은 생계를 위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내년이면 만기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어르신에게 70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전세 자금이 줄고 월세가 오르게 되어 어르신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항상 가족과 함께 있겠다고... 어르신도 심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9월 24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11월호와 12월호에 나누어 운문 수상작과 산문 수상작을 수록합니다.

<저학년 운문>

장원(무소유상)

길상사

정현우 / 경기 조현초등학교 3학년

길상사 커다란 화분에는
무엇이 살까?
작고 귀여운 물달팽이 살지.

길상사 화단에는
무엇이 살까?
알록달록 날개 달린
박각시와 호박벌 살지.

길상사 바위에는
무엇이 살까?
부지런한 곰개미 살지.

길상사 지붕에는
무엇이 살까?
하얀 구름 지붕삼아
착한 거미 집짓고 살지.

맑음상(차상1)

마음 엘리베이터

강주아 / 서울 정릉초등학교 2학년

스르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간 뒤
10초 후 스르륵, 1층입니다.
행복 층! 스르륵

스르륵, 2층입니다.
슬픔 층! 스르륵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층이 있습니다.

슬프면 슬픔 층으로
행복하면 행복 층으로,
마음속에선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마음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맑음상(차상2)

무소유

우예진 / 안양 신기초등학교 2학년

난 푸른 하늘이 좋다.
하늘은 욕심이 없다.
하늘은 친구도 많다.
새도 나비도 별도 친구다.

난 푸른 바다가 좋다.
바다는 욕심이 없다.
바다는 친구도 많다.
물고기도 문어도 계도 친구다.

푸른 하늘은 욕심이 없다.
푸른 바다는 욕심이 없다.
난 푸른 하늘을 닮고 싶다.
난 푸른 바다를 닮고 싶다.

향기상(차하1)

사랑

엄세윤 / 서울 돈암초등학교 1학년

사랑나무 맛보고 있는 나무
가족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무도 사랑한다.

천둥 번개가 내려서
두 나무가 꼬여서
사랑나무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향기상(차하2)

나눔이란?

김채원 / 서울 정수초등학교 3학년

나눔이란?
법정스님이 산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준 것이다.

나눔이란?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
을 나누어 준 것이다.

나눔이란?
힘든 친구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
는 것이다.

나눔이란?
괴롭힘을 당한 아이에게 마음의 용
기를 주는 것이다.

향기상(차하3)

우리 가족

엄세희 / 서울 돈암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빠는 힘이 세요.
어떤 물건이든 들썹들썹.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매일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우리 언니는 책을 많이 읽어요.
매일 독서실에 가서 펄럭펄럭.

우리 동생은 웃기고 재밌어요.
매일 방에서 하하호호!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매일 책상에서 쓱쓱쓱.

<고학년 운문>

장원(무소유상)

가만히 앉아계신 부처님

김서은 / 서울 중계초등학교 4학년

하루 종일 절에 앉아계신 부처님 답답하시지는 않을까?
스님들 불경소리가 시끄럽지는 않을까?
그래도 묵묵히 앉아만 계신다.

번쩍번쩍 금 옷 입고 가만히 계시는 부처님 심심하지는 않을까?
배가 고프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빙그레 웃고 계신다.

세쌍둥이 부처님 우애는 좋으실까?
뛰놀고 싶지는 않으실까?
그래도 나란히 앉아계신다.

맑음상(차상1)

무소유

김하은 / 춘천 후평초등학교 6학년

나무

큰 느티나무

몇 십 년은
계절을 이야기 해왔을

나무

큰 느티나무

기다란 가지 위에
까치가 세 들어 살고

초록 나뭇잎 아래에는
나비가 점심을 먹고 있다.

나무

큰 느티나무

용이진 기둥 안에는
언젠가 날개를 펼 애벌레가 살고

뿌리 밖에 그늘에서는
민들레가 맑고 향기롭게
저녁을 먹는다.

나무

큰 느티나무

새에게
곤충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서
바람에 몸을 기대는
느티나무 한 그루

자신의 몸에
자연이 기댈 수 있도록
느티나무의 마음은
더 커진다.
길상사 입구에 자리 잡은
큰 느티나무의 얼굴이

맑고 향기롭게
부처님의 미소를 품었다

나무

큰
느티나무

맑음상(차상2)

무소유

이예화 / 서울 김음초등학교 4학년

내 마음의 방
쓸데없는 마음들로 가득 찬 마음의
방
쓸모없는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훌
훌 털자

쓸모없는 마음이 없어지면 조용해지
는 마음의 방
내 마음의 무소유 꽃
작고 하찮은 마음에 얽매이면 시드

는 꽃
필요 없는 마음 훌훌 털자
해충, 진흙이 묻어도 아름답게 빛나
는 무소유 꽃

내 마음의 무소유 꽃

향기상(차하1)

무소유

황나영 / 안산 관산초등학교 6학년

먹고 싶은 것을
지나치게 내 뱃속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이게 두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벗을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소유

향기상(차하2)

무소유

김미연 / 인천 은봉초등학교 6학년

엄마는 가볍게 산다며
물건을 버린다.
나도 학원시간 하나 버리고 싶다.

엄마는 물건을 비우며
마음을 비운다.
나도 시간표를 비우고 싶다.
시간표가 바위처럼 무겁다.
안 쓰는 전자제품은
무료수거 해주는데,
가득 찬 학원시간은

무료수거 안 해준다.

향기상(차하3)

가족

김건홍 / 춘천 후평초등학교 4학년

참나무
빌라에 사는

다람쥐 가족이
오늘 딱 도토리를 가지고서
이웃에게 간다

도토리 바구니 안에
행복한 주머니도
들어있다.

다람쥐 가족의
나눔이란 꿈이

참나무 빌라를
환하게 밝혀 준다.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글 • 김선애(회원)

며칠 전 길에서 있을 때, 시각장애
인인 여자와 안내견이 내 앞을 지나
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는 개
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었고, 순해
보이는 개는 여자의 눈이 되어 여자
를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와 개
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둘을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두
눈은 세상을 향해 열린 놀라운 창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
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
음속 씨앗이 된다. 보고 듣고 먹는
것—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씨를 뿌리
고 있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생각, 감정,
말, 행동 같은 씨앗을 심는다. 그것
은 친절, 자애 같은 긍정적인 것일 수
도 있고, 탐욕, 화 같은 부정적인 것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적
당한 흙과 온도와 충분한 물을 만
나면, 즉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싹
이 튼다.

지난 11월에는 몇 명이 모여 우리
연구원 밭에다 보리 파종을 했다. 농
사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나 같은
초보자를 위해 파종 시범을 보여주
셨다. 씨를 넓게 흩뿌리는 그 뒷모
습이 멋있었다. 자연스럽게 거침없

는 움직임이 예술이었다. 우리는 부
드러운 땅에 보리를 심으며 잘 자라
기를 바랐다. 일주일쯤 뒤에 밭에는
조그만 초록색 싹이 돋아났다. 아침
이슬 촉촉이 맺힌 보리를 보며 나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보리는 무
럭무럭 자라고 있고, 여름이면 누렁
게 익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씨앗
을 뿌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미
움이나 초조함 같은 감정이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한때 슬픔의 씨앗을 심고 물
을 너무 많이 준 나머지, 씨앗이 나
무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슬픔의 나
무는 기쁨과 이해와 사랑의 씨앗을
위한 훌륭한 거름이 될 수 있다. 우
리는 힘든 일을 겪은 경험을 통해 어
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

해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든
지금부터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밑거
름으로 변신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가 겪은 모든 일에서 무언가를 배우
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가능성
을 활짝 꽃피운다면 얼마나 아름다
울까.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
히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
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순
간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 <나에게로 가는 여행>에서



<나에게로 가는 여
행>은 여행, 농사,
연극, 글쓰기, 함께
행복한 삶 등에 대해
쓴 수필을 모은 책입
니다. 이 수필집의

일부 원고는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실
렸고, 대부분의 원고는 영문본으로 영자신
문 <코리아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지음

글 • 윤부혁(작가)

미국의 자연주의 운동가인 헬렌 니어링의 수상록인 이 책은 26세의 저자와 세계적 지성인 스콧 니어링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헬렌은 스콧과 함께 보낸 충만한 삶과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고도 위엄을 간직한 채 맞이한 스콧의 죽음을 통해 사랑과 삶,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헬렌 니어링(Helen Nearing, 1904~1995)은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자연주의자로 뉴저지 리지우드 출생이다. 생태주의자인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바이올린을 공부했고, 명상과 우주의 질서에 관심이 많았다. 세계적인 연주

자의 꿈을 안고 16살 되던 해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기의 명상가로 불리는 크리슈나무르티와 사귀기도 했다.

24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헬렌은 평화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인 스콧 니어링(Scott Nearing, 1883~1983)을 만나 삶의 길을 바꾼다. 헬렌보다 21살이 많은 스콧 니어링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학교수 시절 아동 노동 착취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대전에 반대하다 끝내는 해직되고야 만다. 1932년 둘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미국 버몬트의 한적한 시골로 이사한다.

그곳에서 직접 돌집을 짓고,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의 생활을 시작한다.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며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많이 가지기보다는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았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시간만 노동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명상, 여행에 할애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손을 이용해 일했는데, 현대 문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식사 또한 특별한 조리법이 없었다. 통밀빵과 생과일, 소금을 안 친 팟콘처럼 가능한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고, 육식하지 않았다.

‘사과든 토마토든 풀 한 포기든 먹으려면 그것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자연의 경이를 소비할까?’라는 표현에 두 사람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현대인은 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식사 준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 시간에 창의적이고 즐거운 시간으로 사용했다.

헬렌과 스콧은 그렇게 반세기 동안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함께한 '땅에 뿌리박은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스콧의 100세 생일을 맞던 날 이웃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서 왔는데 그 깃발 하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스콧 니어링이 백 년 동안 살아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다.”

현대인이라면 먼 시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생활을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은 50여 년 가까이 실천에 옮긴다. 그들의 사상과 삶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쁘게는 살지만,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도 모르고 사는, 모든 것이 소비 지향적으로 이뤄지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

를 제공한다.

스콧 니어링은 1983년 100살이 되던 해, 죽음이 앞에 왔음을 느끼고 스스로 음식을 끊어 삶을 마감했다. 헬렌 니어링 또한 1995년 92세의 나이로 죽는다. 둘 다 인생을 충분히 즐겼다. 행복하게 떠났다.

헬렌은 이 책을 87세에 썼다. 헬렌 자신보다도 스콧 니어링의 삶과 반세기에 걸친 두 사람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탁월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이며, 교육자이자 생태주의자인 스콧은 스스로 말한 것을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한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독립된 경제를 꾸려 불황을 타지 않는 삶을 살기, 건강을 지키기, 사회를 생각하며 살기, 도시를 떠나면서 니어링 부부는 위의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원칙을 정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의 대부분은 자급자족했다. 남은 농산

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부에게 필요하지 않은 채소와 곡식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줬다.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어 짐승 또한 기르지 않았다. 오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 사색 등으로 자유 시간을 보냈다. 한 해의 양식이 마련되면 더 일하지 않았다.

“우리는 의무로부터 피해 달아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의무를 찾고 있었다”고 니어링 부부는 적었는데, 이름 없는 부부의 시골 생활은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을 제공했다. 그들은 당시 미국적 삶의 방식에 지친 여느 지식인들처럼 파리, 멕시코, 파라과이로 갈 수도 있었지만 니어링 부부는 미국에 머물며 미국인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다. 그들은 사회 체제의 대안이 될 원칙과 실재를 세우고 다듬어 공식으로 만드는 일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안에서나마 올

바르게 살아가는 본모기를 보여주는 일을 하려 했다.

스콧의 죽음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불러야 할 듯하다. 스스로 원했던 뜻대로 세상을 떠난 스콧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헬렌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주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의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은총에 가득 찬 그이의 떠남에서 한 생명체가 자기 힘을 다 쓰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목격했다. 스콧은 자신의 시간을 가졌고, 바라던 때에 갔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헬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스콧이 만

100세가 된 지 3주일 뒤 메인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날 하나의 장이 막을 내렸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이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나는 무대 밖으로 사라진 그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고,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떠나갔다. 그이는 나보다 조금 앞서 우리의 조화로운 관계 밖으로 떠나갔다.’

이 책 속에서 헬렌은 스콧과 함께 보낸 충만한 삶과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고도 위엄을 간직한 채 맞이한 스콧의 죽음을 통해 사랑과 삶,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또한, 두 사람의 사랑은 조화로운 삶, 참으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준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일요특강 '나의 길, 나의 삶'

11월 26일(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아집에 묻혀 있었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2006년 '비폭력대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 무척 놀랐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는 어려운 대화법이었습니다.

변화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통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그리고, 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맞은 수강생들이 소개, 소개해주어서 강사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감대화 강사로서 위치가 확고해지니, 2012년 서울시 인권강사가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공감 대화와 인권이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공감 대화와 인권 강의를 하면서 제 삶이 우선 매폰 향기롭게 변화되었고, 타인의 삶이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짜릿함이 있어서 흐뭇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11월 특강은 현재 월간 '매폰 향기롭게', 소식지에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를 연재하고 있는 고현희 원장님을 초청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청강을 권해드립니다.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진행하였습니다.

(사)매폰 향기롭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능력을 고취시키고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매폰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고자, 지난 9월 24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준(동국대 국어국문 문창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함명춘(시인)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10월 29일(일) 오전 11시 시상식을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입상하신 어린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안타깝게 입상하지 못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무소유상 (장원) 상금30만원	윤문	저학년	정현우(경기 조현초)
		고학년	김서은(서울 중계초)
	산문	저학년	김수아(서울 은석초)
		고학년	정영학(경기 조현초)
맑음상 (차상) 상금20만원	윤문	저학년	강주아(서울 정릉초), 우예진(안양 신기초)
		고학년	김하은(춘천 후평초), 이예화(서울 길음초)
	산문	저학년	김규빈(서울 은혜초), 신지민(안천 굴현초)
		고학년	김예원(서울 은혜초), 전유정(의정부 청룡초)
향기상 (차하) 상금10만원	윤문	저학년	김채원(서울 정수초), 엄세운(서울 돈암초), 엄세희(서울 돈암초)
		고학년	김건홍(춘천 후평초), 김미연(인천 은봉초), 황나영(안산 관산초)
	산문	저학년	김현영(남양주 구룡초), 전유건(의정부 청룡초), 정진현(서울 우촌초)
		고학년	김지원(서울 길원초), 조민지(서울 을지초), 최지유(서울 돈암초)
장려상 상품권 5만원	윤문	저학년	구민지(서울 한천초), 김지윤(서울 석계초), 김태리(서울 한천초), 박수현(서울 청운초), 조현규(서울 소의초)
		고학년	김민준(서울 동자초), 남송현(경기 둔대초), 원수혁(서울 일신초), 조건우(서울 대은초), 조은솔(남양주 오남초)
	산문	저학년	강승민(서울석계초), 권수진(서울 개운초), 김보승(서울 가주초), 김효우(서울 길원초), 이아영(서울 삼선초)
		고학년	권수연(서울 개운초), 김건우(구리 구지초), 김나혜(서울 상명초), 나에서(서울 광진초), 나정은(서울 송덕초)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 행사 진행 하였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봉사팀은 10월 23일(월)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을 기획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2,300여 분께 점심 식사 후 떡과 음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시설 어르신과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나눔으로써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나눔 정신을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결 같이 참여하는 정기 자원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나눔 행사 11월 11일 진행합니다.

본모임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팀은 시설 어르신을 모시고 흥겨운 자리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생활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소 생활관에서 지루한 일상을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비록 한 달에 한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자원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실 뜻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있는 어르신 이용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매일 2,000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 활동으로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약 5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말벗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거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목)/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 26일(넷째 일요일)/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오전 11시/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연말 김장 나눔 자원활동 : 11월 30일(목) 오전 9시 ~ 4시/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양념



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8일)/오후 1시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8, 25일)

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봉사자 숲기행 : 11월 10일(금)/월정사 전나무 숲길외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 니스님 학교 후원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전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로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7회차 기도가 10월 2일(월)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1월 4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1월 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1월 11일(토) 오후 8시 00분~11월 12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1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수능합동천도재

- 일시 : 11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 1,000일 기도 1회차 회향

-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100일 시식은 9시 20분에 시작됩니다.

2018년도 입시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2회차 입재

- 일시 : 11월 17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1월 18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24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길상사 -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 순례」

인도는 광활한 대지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나라다.

나는 시절 인연이 오면 다시 인도에 가서 또 다른 인도의 모습 앞에 마주 서고 싶다.

그래서 인도가 지닌 진짜 얼굴을 찾아냄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해 보고 싶다.

- 법정 스님 「인도기행」 서문에서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보름기도	11월 3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1월 4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6일(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11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관음재일	11월 12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수능 합동천도재	11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1회차 회향	11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지장전
2018년도 입시기도 회향	11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2회차 입재	11월 17일(금)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초하루법회	11월 1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길상화 보살기일	11월 24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입시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일정 : 2018년 1월 9일(화) ~ 1월 20일(토) / 10박 12일
- 동참금 : 285만원(카드결제 가능, 계약금 30만원)
- 모집 인원 : 30명
- 접수 : 1차 2017년 10월 31일까지 접수시 5만원 할인
2차 2017년 11월 30일까지
- 여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필라바스투 - 스라바스티 - 렉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델리 - 인천
- 항공편 : 아시아나 항공
- 여행사 : 금강투어
- 문의 및 접수 :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
- 종무실 안내 책자 비치 및 길상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반민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함께해요!

일시 : 11월 30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나눔 대상자 : 홀로어르신, 장애인 500여 가구에 15kg씩 나눔

- **내용** : 11월 30일(목) 9시 30분부터 배춧속 양념 넣기,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전 7시에 오셔서 배추 하차 지원해주실 남자 봉사자 일손이 필요합니다.)
- **참여 대상**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개인 봉사자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혜택** : 점심 제공,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봉사 참여를 미리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기업체, 단체 봉사 참여는 받지 않습니다.
- 당일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봉사자 및 길상사 방문객께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후원 동참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www.clean94.or.kr